

재배가 쉽고 품질도 좋은 다수확 땅콩 '신팔광'

배 석 복 두류작물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농가에 보급된 기존의 품종보다도 수량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키가 작아 재배가 쉬우며 향후 국내 땅콩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는 '신팔광' 땅콩을 개발하였다.

● 줄기가 짧고 알이 충실한 '신팔광' 땅콩

땅콩은 1980년대에 2만ha 이상까지 재배되었으나 수입개방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현재 4,100ha에서 재배되며, 국내 자급률은 27% 정도에 머물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품종개발을 통해 땅콩의 수량성을 1980년도(10a당 239kg) 대비 약 2.3배까지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신팔광' 땅콩은 알 수량이 540 kg/10a으로 대비품종인 '대광' 땅콩보다 28%나 많은 초다수성 품종이다. '신팔광'은 농가에서 재배를 선호하던 '팔광' 땅콩의 쓰러짐과 알 크기, 수량성을 개량한 신품종이다. 가지수가 25개 정도인 다분지종으로 줄기 길이가 짧아(41cm)가 기계수확에 유리하며, 땅콩의 주요 병해인 그물무늬병과 흰비단병에도 강하여 농가에서 재배하기가 좋다. 포기당 성숙꼬투리가 많이 달리고 껍질이 얇아 알맹이의 비율이 높으며 100알의 무게는 92g으로 무거운 대립종이며 수량과 관련된 여러 특성이 우수하다. 기존 품종에 비해 수량이 높아 국내 땅콩재배면적의 30%를 대체할 경우 67억원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고 국내 생산량이 14.4% 증가하여 국산땅콩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건강기능성이 좋은 '신팔광' 땅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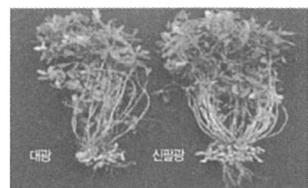
땅콩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심혈관질환 등 건강기능성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국산 땅콩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신팔광' 알맹이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43.9%)과 리놀레익산(41.5%)을 84.4% 정도의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또한 부산물인 땅콩껍질에는 항염증, 항암, 항알러지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성분인 루테올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신팔광' 땅콩의 껍질에는 루테올린이 g당 3.6 mg(0.36%)으로 대비 품종 '대광'보다 2.3배 더 많이 함유하여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팔광 땅콩 종자는 올해부터 주산단지 위주로 농가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일반농가에도 분양할 계획이다. 재배 시 주의할 점은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 이후 가뭄이 심하면 꼬투리확보하기가 어렵고, 성숙기까지 잎이 푸르도록 잘 관리하여야 알맹이가 굵고 충실하여 수량을 높일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4년 5월호)

신팔광 땅콩의 주요특성

품종명	줄기길이 (cm)	가지수 (개/주)	꼬투리수 (개/주)	꼬투리 비율(%)	100립무게 (g)	Luteolin 함량(ms/g)	그물무늬병 (0-9)	수량 (kg/10a)
신팔광	41	25	45	79	92	3.60	1	540
대광땅콩	59	11	41	75	80	1.59	3	423



▲ 신팔광 지상부생육